

간호학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간호학 세부 진로 신중히 고민 확고한 생명 윤리의식은 필수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학과 선택에서 취업 전망은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요소가 됐다. 특히 병원과 각종 연구소, 관련 기관 등에 진출하기 쉬운 보건 계열은 경력 단절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기 용이해 관심이 높다. 그 중 간호사는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서 매년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에 오를 만큼 각광받는다. 대학 입시 결과에서도 간호학과는 높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보인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면 주목하자. 참고하면 좋을 주요 정보를 모았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박은영 교수(가천대학교 간호학과) · 전천석 소장(삼선대학입시연구소 · 삼선솔리피)

정승익 교사(인천공항공고등학교) · 정제원 교사(서울 송의여자고등학교) · 최승후 교사(경기 대화고등학교)

자료 2021 각 대학 모집 요강 ·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서울·수도권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00여 명 선발

2021 수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모집하는 서울·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은 20여 곳이다. 총 500여 명 규모인데, 주요 대학 중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간호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표 1).

서울 송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실용 위주 학과에 대한 선호는 상위권, 중위권 대학 할 것 없이 여전하다. 특히 간호학과는 상위권 대학부터 전문대학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간호학과의 합격선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다른

학과에 비해 낮고,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대체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면 임상 간호직이 목표인지, 간호대학을 거쳐 교수직이나 연구직, 보건 공무원, 관련 단체 활동가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지, 자기 진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 기준 적용 대학 드물고, 교과 성적과 면접 비중 커

간호학과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 전형 등 다양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4년제 대학은 수시 6회 제한, 정시 모집군 제한에 영향을 받지만 전문대학은 횟수 제한과 모집군 구분이 없다. 전문대학은 종합 전형이더라도 교과 성적이나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합 전형 대부분이 그렇듯 간호학과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다.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의 간호학과에 지원한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외 대학은 서류 평가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삼선대학입시연구소 전천석 소장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위주로 선발하긴 하지만, 간호학과의 종합 전형은 의예과처럼 교과 성적의 비중

대학	전형명	전형 방법	모집 계열	모집 인원	수능 반영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경희대	고교 대학 연계(종합)	교과 30 + 서류 70	인문	9		×
			자연	9		
고려대	일반- 학업 우수형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자연	18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2)	4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일반- 계열 적합형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60 + 면접 40		10		×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서류 70 + 면접 30	공통	21	국어, 수학(나), 영어, 탐구(사/과)(2)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탐구(사/과)(2)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일반			33		×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서류 100	공통	16		×
	자기주도 인재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 면접 40		16		
연세대	면접형	1단계(3배수): 교과 40 + 서류 60 2단계: 1단계 40 + 면접 60	공통	10		×
	활동 우수형	1단계(4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60 + 면접 40		24		
이화여대	미래 인재	서류 100	인문	5	국어, 수학(나), 영어, 탐구(사/과)(1)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	18		
중앙대	다비치형 인재	서류 100	인문	16		×
	탐구형 인재		자연	18		
			인문	10		
			자연	13		
학교장 추천	교과 60 + 서류 40	인문	8			
한양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평가 100	인문	11		×
			자연	10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1학년 대입 수시 전형 진학지도 길잡이' 계열별 지원 전략: 간호·보건 계열 자료 중 간호학과 관련 내용을 주렸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과 모집 계열, 전형 방법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고른 기회 전형은 제외.

자료 2021학년 대입 수시 전형 진학지도 길잡이

구분	해당 대학
인문·자연 구분 선발	가천대(교과·적성) 가톨릭대(교과·논술) 경희대 성신여대(교과·논술) 이화여대(종합) 인하대(교과·논술) 중앙대 한양대(종합) 등
자연 계열만 선발	고려대 이화여대(교과·논술) 한양대(교과·논술) 등
계열 무관 선발	가천대(종합) 가톨릭대(종합) 대진대 삼육대 서울대 성신여대(종합)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을지대 인하대(종합) 차의과대 평택대 한국성서대 한세대 등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간호학과는 자연 계열 학과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 자연 계열만 선발하는 곳은 많지 않아 인문 계열에도 열려 있는 모집 단 위다.

자료 각 대학 2021학년 모집 요강

이 큰 편이다. 지원 학생들 간의 교과 연계 활동, 즉 비교과 활동의 변별이 크지 않은 만큼 간호학과 지원을 희망한다면 교과 성적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호학과는 자연 계열?

인문·자연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도 많아

간호학과는 대부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인문과 자연 계열을 분리해 모집하고, 가톨릭대는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반면 고려대 간호학과는 최저 기준에 수학 가형 과 과학탐구를 충족 조건으로 걸어 자연 계열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의 경우 종합 전형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학생을 모두 선발하지만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 계열 학생만 선발하는 점이 다르다(표 2).

교차 지원의 경우 최저 기준이 없다면 고등학교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교차 지원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꼭 따져봐야 현명한 지원이 가능하다. 정 교사는 "교차 지원은 선택의 폭을 넓혀 주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지원자 풀이 늘어나면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생명 윤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

배려·소통·공감 능력 갖춰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호학과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진로 탐색과 동아리·봉사 활동 등을 활발히 한 학생이라면 종합 전형에 도전해볼 만하다. 전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태도, 협력과 소통의 자세다. 특히 생명 윤리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생물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면 활동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깨달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등 관련 독서를 통해 환자의 죽음과 간호사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경험도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생활 안에서 전공 적합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물론,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간호 관련 지식을 쌓거나 학교 보건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기 대학교 최승후 교사는 “체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한 직업인 만큼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영어 공부는 다양한 의료 용어를 익히는 데도 필요하지만,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 환자를 돌보거나 해외 의료 산업에 진출할 때도 유용하다. 간호사의 직업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간호 또는 질병·의료 관련 기사를 꾸준히 검색하는 것도 좋다. 다양한 질병을 접할 수 있는 투병환자의 에세이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춰야 한다. 가천대 간호학과 박은영 교수는 “환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 능력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MINI INTERVIEW 도전! 간호사의 꿈



“깊이 있는 독서와 봉사 활동, <생명과학> 수강 추천해요”

문서빈
경희대 간호학과 3학년

Q.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학생회에서 1학년장, 총학생회장, 봉사부장 등을 하며 리더십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중도실명자 봉사 캠프와 어르신 배식 봉사 같은 보건 관련 봉사 활동도 꾸준히 했다. 수행평가나 진로 활동 시간에는 간호나 보건을 주제로 보고서 발표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이때 전공 관련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다.

Q. 수능 과목과 교과목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수능 과학탐구 과목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특히 <생명과학>은 간호학과에서 ‘생리학’을 포함한 여러 교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도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Q. 전형 당시 경희대 면접 질문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인성 면접과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으로 진행했다. 심층 면접 질문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재조합 등을 통해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반면, 생명 윤리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었다.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를 포인트로 해 구체적인 이유를 2개 정도 간추려 대답했다. 면접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활짝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Q. 간호학과를 진로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2학년부터는 전공을 8~9개씩 수강해야 하고, 3학년 땀 실습과 전공 수업을 병행해야 해서 학업량이 많다. 취업 걱정이 없어서,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다면 적응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간호대학마다 인재상과 중점 평가 영역이 다르니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Tip

간호학과 면접은 이렇게!

간호학과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인천공 항고 적응의 교사는 “학생부의 자율 활동, 독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부 기록을 기반으로 교과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 윤리나 과학 윤리, 환경·정보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면접 문항 예시>

- | | |
|------------------------------|----------------------------------|
| ①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가? | ⑦ 암의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 ②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 | ⑧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견해는? |
| ③ 간호사가 지녀야 할 직업 윤리는? | ⑨ 암 환자에게 병을 본인에게 전할까, 보호자에게 전할까? |
| ④ 4차 산업혁명 사회에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 ⑩ 낙태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
| ⑤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 ⑪ 혈압의 정의는 무엇인가? |
| ⑥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 | ⑫ 죽음을 앞둔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